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95)(11/26/2021)

제 3 권 내적 위로

제 5 장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맺어지는 놀라운 열매들, 5-8 절

고전 10:33 -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빌 2:21 -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롬 8:35 -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5. 사랑은 깨어 있어서, 잠을 자도 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곤해도 피곤에 놀려서 나가떨어지지 않고, 에워싸여도 싸이지 않으며, 놀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도리어 활활 타오르는 불꽃과 햇불처럼, 모든 것을 거침없이 뚫고 위로 높이 솟아오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소리치는지를 압니다. 영혼이 열렬한 사랑으로 타오를 때, 그것은 영혼이 하나님의 귀에 대고,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이시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시고, 나는 전적으로 주의 것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6. 내 안의 사랑이 더 커지게 하셔서, 사랑하는 것과 사랑 안에서 녹아지는 것과 사랑에 흠뻑 빠지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를 내 마음의 내면의 입술로 맛보는 법을 알게 해 주소서. 사랑에 붙잡혀서, 지극히 큰 열심과 경외감 속에서 내 자신을 뛰어넘게 해 주시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저 높은 곳에 계신 내 사랑하는 분을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사랑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다가 죽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신보다 주를 더 사랑하게 해 주시고, 오직 주로 인하여서만 내 자신을 사랑하게 해 주시며, 주님 안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저 사랑의 법이 명하고 있는 것처럼, 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주 안에서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7. 사랑은 신속하고 진실하며 경건하고 유쾌하며 온유하고 강하며 인내하고 신실하며 사려 깊고 오래 참으며 용감하고, 결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고전 13:5). 어떤 일에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그 일에서는 사랑으로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고전 10:33; 빌 2:21). 사랑은 신중하고 겸손하며 정직하고, 유약하거나 경박하지 않으며, 헛된 것들에 마음을 쓰지 않고, 술에 취하지 않으며, 순결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으며, 침착하고, 매사에 조심합니다. 사랑은 윗권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자기 자신은 보잘것 없고 미천한 존재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잘해 주지 않으셔도, 늘 하나님을 믿고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슬픔과 괴로움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8.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자기가 사랑하는 분의 뜻을 변함없이 따를 각오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롬 8:35).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온갖 힘들고 내키지 않는 일들을 기꺼이 감내하고자 하고, 역경이 닥쳤다고 해서 등을 돌리거나 변절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말씀과 해설:

아가서에 기록된 남녀 주인공의 사랑은 단순히 남녀의 에로스적인 사랑을 묘사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아가서 8:6은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아 8:6 - 너는 나를 도장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 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 같이 잔인하며 불길 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 같이 강하고”**라는 표현은 사랑의 힘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한다. 죽음 같이 강한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원한 사랑을 의미한다. 아울러 그러한 사랑은 질투를 수반한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부정적이며 파괴적이지 질투가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에 집중되는 열정을 의미한다. 이 열정은 뜨거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기록한다. **신 4:24 - 네 하나님 여호와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질투를 느끼신다. 그 질투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반증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뜨겁고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서 인간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해 하셨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허락하심으로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영원한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표현된 것이다. **롬 5:8 -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롬 8:37 -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울하고 소망이 없고 길이 막혔을 때에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다.

사도바울을 비롯한 서신서의 저자들은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위로했다. **살전 1:4 -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예수님의 형제 유다도 다음과 같이 편지의 서두에 기록했다. **유 1:1 -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척박한 인생길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샘솟는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척박한 삶에서 당면하는 모든 일들을 지혜롭고, 선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감당하며 처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처세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고전 16:14 에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했다. **엡 4:1-3 -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베드로 역시 성도들에게 뜨겁게 사랑하라고 권면했다. **벧전 1:22 -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 사랑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 주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다. **롬 13:10 -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에게 임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일을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음을 기억함으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심령에서 샘솟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히 채우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이 땅에 존재하는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 차별, 억압, 착취로 인하여 고통 속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자유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정의의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3. 우리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지들과 기관들을 오늘도 성령으로 붙잡으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가 끊이지 않는 사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